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요즘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온라인수업이 늘어나고 아이가 집에 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책 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더 많 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과 달리 책은 한참 읽어야 묘미를 찾을 수 있다. '재미'관점에서 보면 책은 스마트 폰이나 게임과 경쟁이 안 될지 모른 다. 독서는 시간 나면 할지 말지 선 택하는 그런 '취미활동'이 아니라, '공부'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선제적 으로 해야 하는 '기초체력' 학습활 동으로 봐야 맞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책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와 책을 읽을 때 뇌에 불이 들 어오는 영역은 각각 다르다. 게임은 두뇌에서 특정한 부분만 불이 들어 온다. 두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데 비해, 책을 읽을 때는 두뇌 전 영역 을 사용하게 된다.

두뇌 에너지를 쓰는 정도가 다르 다 보니, 책을 읽으면 머리 아픈 애 는 머리 쓰는 연습이 덜 된, 일종의 '두뇌 체력'이 떨어지는 아이다. 마 치 체력 약한 사람이 운동할 때 쉽게 헐떡이는 경우와 같다. 머리를 조금 만 쓰던 아이가 공부한다고 머리 전 체를 쓰다 보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아이가 자기주도학습을 못하고 주 의가 산만한 경우, 저조한 '학습 능 력'과 불성실한 '학습 습관'에서 원 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 원인 은 부실한 '독서 능력'이다. 이렇듯

독서는 취미활동 범주가 아니라 '두 뇌 기초체력' 차원에서 '학습활동의 전제'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책 읽기와 교과 공부 중 어떤 게 아이가 더 힘들까? 당연히 교과 공 부가 더 힘들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를 원한다면,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학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이가 느끼게 하고, '독 서'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 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머리를 덜 아프게 하면서, 자기 두뇌에 고루 불을 켜고 사고하는 연습이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학습도 더 잘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텍스트를 읽 는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생각은 오 해다. 텍스트를 읽는 능력은 노력하 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책을 보면 머리 아픈 아이일수록 임상 관점에 서 독서가 더 필요하고, '책 읽기'가 더 중요하다. 달리기든 피아노든 노

력이 멈추는 순간 그 능력은 떨어진 다. 저절로 이뤄지는 건 없다. 독서 도 똑같다.

어떻게 해야 책과 가까워질까? 5 분을 읽든 10분을 읽든 책을 읽는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 다. 책을 5분밖에 못 읽냐고 말하면 안 된다. 그 아이에겐 5분도 힘든 시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5분이 됐 든 10분이 됐든 책을 충분히 읽지 못해도 아이를 이해하고 격려해 줘 야 한다. 책 내용을 말과 글로 꺼내 보며 '논리'를 스스로 터득할 필요 가 있다. 부모가 먼저 책을 가까이 하고 책에 대해 아이와 대화하면 더

'책 읽는 DNA'는 애초에 없다. 독 서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결국 '습 관'과 '노력'의 문제다. '스스로 공 부하는 아이'를 원한다면, '독서'는 취미가 아닌 '두뇌 기초체력' 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보다 경관에 더 집중?

이승택 이사장 행감서 뭇매

○…제주문화예술기관 수장인 이 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 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이 사장이 제주도 경관위원회 회의에

의원들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계가 힘겨운 상황 속 문화분야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경관위원 회에 꼬박 참석하는 건 문제가 있 으며, 왜 경관위원장을 고집하는 오은지기자

청와대 입장 득일까, 실일까

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 당, 제주시갑)의 재판 과정이 주 목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주목. 검찰은 송 의원이 4월 7일 오일

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 신의 요청에 4·3추념식에 참석했 다고 발언한 것 등이 허위사실 공 표라고 판단.

청와대는 당시 "이미 선거와 거 리두기를 선언했다"며 "법정기념 일에 대통령이 가는 것이 총선용 행보인지는 영령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일축. 부미현기자

재단 공모사업 부적절 논란

○…제주문예재단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공모를 두고 예산과 사업 추진 방식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

'예술창작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예산의 1/3인 1억5000 만원을 공개채널 영상콘텐츠 공유・ 유통 방안으로 도내 지상파 방송에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

일각에선 코로나 극복 사업임에 도 예술가가 아닌 방송사에 예산을 지원한 점, 입찰이 아닌 공모로 진

전세버스 고사직전인데 대책이 없다니

제주지역 전세버스업계의 어려움 이 말이 아닙니다. 일부 관광업종 은 휴가철이나 황금연휴 때 '반 짝특수'나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업계는 이런 기 회마저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 습니까. 코로나19 여파로 단체여 행객이 끊기면서 전세버스업계가 다 죽게 생겼으나 현실적인 대책 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에 따르면 10월 현재 도내 전세 버스 등록 52개 업체가 보유한 1814대 중 가동률은 4.9%에 불과 합니다. 도내 전세버스 가동률은 2017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 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해 28.5%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 다. 하지만 이듬해 전세버스 가동 률은 30.9%에서 지난해 35.6%로 회복하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버스업계는 자 구노력에 나섰으나 막막한 상황 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16~2020

년 전세버스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에 등록한 전세버스 1855대 중 1059대(57.1%)가 휴 업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세버스 128대가 휴업한 점을 감안하면 6 개월 새 무려 8배 이상 늘어난 겁 니다. 제주를 찾는 단체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전세버스업계는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제주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세버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 려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제주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 는 것도 없습니다. 고작 지원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관광진흥기 금 특별융자 등에 그치고 있습니 다. 그런 지원정책도 지역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안 타깝습니다. 그 막강한 특별자치 도에서 '고사 위기의 전세버스'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전라북도나 경기도는 관광업계를 위해 한발 앞선 지원 정책을 펼치는데 제주도는 도대체 뭘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도의회 탈권위, 혁신 '행보'를 주목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후반기 도의 장으로 취임한 좌 의장 행보가 벌 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간 사회 전반의 변화 바람으로 당연시 여 겨온 탈권위, 혁신이란 말들이 최 근 좌 의장 주도로 도의회 '화두' 로 떠오른 겁니다. 도의회가 늦게 나마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위 해 잔잔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 는 시도로 평가받을만합니다.

좌 의장은 13일 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의회의 특권 의식이나 권위를 내려놓고 찾아 가는 의정,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 을 위해 매진해 왔다"며 "앞으로 도 도민 눈높이에 맞춘 민생·소 통 의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장 취임 이후 변화•혁신에 초점을 맞춘 행보입니다. 실제 좌 의장은 지난 달 16일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 로 권위주의 시대 산물인 190cm 높이 의장석을 의원석 높이와 비 슷하게 낮춰 의원들과의 '눈높이

소통'에 나섰고, 의회 내부 혁신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7월 발족한 '도의회 의회혁신기 획단'에 의해 의원 인사청탁·성 희롱·사적 노무 금지, 사무처 직 원 외부강의 기준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의회 혁신 제1·2·3호 조례 안도 발의됐습니다. 향후 의회 조 직 개편, 회의 방법 개선 등도 추 진합니다.

그러나 좌 의장 행보가 고유의 의정활동 소홀로 '본말전도'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 니다. 의정은 집행부인 도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시기능 강화에 적 극 나설 때 더욱 빛을 냅니다. 당 장 제2공항 끝장토론 문제, 내년 예산안 '긴축재정', 제주시설공 단 조례안, 폐기물 및 하수처리, 1차 산업 대책 등 핵심 현안에 대 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줘 야 합니다. 도민들은 의회 혁신 행보 못지않게 도정 견제·감시기 능을 대폭 높인 의정활동을 늘 기 대합니다.

편집국 25시

김 도 영

편집부 기자

doyoung@ihalla.com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병역 특례 논

쟁이 '뜨거운 감자'다. 정치권이 앞

다퉈 "국위선양을 하는 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거나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병역 연기를 추진하는 법

안을 내기도 했다.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

문화예술인을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상 가장 예민한 병역을 두

특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은 대

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인 예

술·체육요원에 포함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제도는 체육요원의 경

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아시안게임

은 1위를 해야 한다. 예술요원은 병무

卫

현기학(현일약품 대표) 아버지 연주

현공 성우(前 표선면장·향년 85세)

께서 서기 2020년 10월 14일 02시경에

▶일 포:2020년 10월 16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0년 10월 17일(토요일)

며느리 고명임

사위김필수

며느리 김경순

며느리 고은희

손 부 **김 소** 혜

손 녀 현 채 원

외손녀 김 미 림

혜림

오전 7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표선면 세화1리 선영

아들현기학

딸 현기정

아들현길학

아들현상학

손 자 **현 지** 훈

중손자 현 서 진

정훈

수훈

도훈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 연일 발언이 쏟아진다.

아이돌 가수와 형평성

청장이 정한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 성적 상위 2명, 전통 예술 분야 의 경우 국내 대회 입상 성적 상위 1명에 든 사람이 해당한다. 국가무형 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도 포함된다.

시대가 변해 아이돌 가수, 프로게 이머 등 20대에 특화된 새로운 직업 군이 생겨나 1973년 만들어진 병역 법에 한계가 있어 추가 방안을 모색 하자는 주장이다.

특례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기업의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이돌 가수라는 직업군에게 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다. 또 기존 병역법에 있는 학업, 질 병 등 입영 연기가 가능한 조항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 그 대상과 기간 의 확대를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방탄소년단이라는 대상을 전제로 한 성급한 추진을 경계한다.

나는 궁금해졌다. 예술·체육 이외의 분야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병역 의무 자는 특례의 기회조차 얻지 못 하는 것은 공정할까. 아이돌 가수는 처음부 터 국위선양을 목표로 그 일을 선택한 것일까. 20대의 삶과 그 시간이 소중 하지 않은 이들이 어디 있을까.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0월 5일 임시조합원총회

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4호 및 같은법 같은조 5항에 의하여

본 회사 조직의 형태를 영어조합법인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변

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

길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조

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주바다목장 영어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해안로 2532

대표이사 이 태 순

뉴스-in

문화분야보다 경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에 혼쭐.

꼬박꼬박 참석한 점을 집중 제기.

것인지를 질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행한 점을 들며 특정사를 염두에 뒀다는 주장까지 대두. 진선희기자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공사 기능인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구직자 / 재직자 / 영세사업자 등 모집 마감 − 7개월(09:00~16:00) 성실하게 수료하고

고용보험 취업가능 하신분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등 제외 교육기간 근시일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축) 취업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라 전 설 (주)

대 표: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주 개 발 ※ 연락처: 현기학 010-5228-6212 서귀포지사 현길학 010-3381-4215 **712-3644**, 782-3644 현상학 010-3231-4215 732-5552 010-4690-3636 김필수 010-3360-8010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